

산업화 50년...GDP 85배·수출 153배 늘었다

상공의 날 50주년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 준비' 보고서 발표

GDP 1인당 563.3→3만2236달러·시장점유율 39위→7위
일자리 1706만개 늘어...농어업·상사·섬유 → IT·전자·금융

한국 경제가 산업화 원년인 1970년대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5배 가량 늘고, 수출은 1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지난 50년간 총 17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 준비' 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통해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 한국 경제의 달라진 변화상을 비교 분석했다.

1970년대는 삼성전자(1969년 설립)와 현대차(1967년 설립), 포스코(1968년 설립)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본격 성장한 시기다.

◇50년간 1인당 GDP 57.2배 상승...산업구조도 고도화=보고서에 따르면 GDP 규모는 1974년 195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조6643억3000만 달러로 85.2배 상승했다. 1인당 GDP도 563.3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상승했다.

1974년 베네수엘라(25위), 인도네시아(26위), 나이지리아(29위)보다 낮았던 GDP 순위(30위)는 2021년 10위로 경중 뛰어올랐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GDP에 기여

한 비중은 평균 20.0%로, 미국 10.8%, 일본 16.6%, 영국 10.7%, 독일 12.1%, 프랑스 11.6%, 캐나다 10.7%, 이탈리아 10.3% 등 주요국(G7)보다 높았다.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는 농어업·상사·섬유산업 위주에서 IT·전자·금융산업으로 고도화됐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 초반 주력 산업은 농림어업(13.8%), 종합상사 등 도소매업(13.6%), 섬유(11.6%), 백색가전(4.2%) 등이었으나, 최근 5년(2017~2021년)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 등으로 바뀌었다.

◇시장 점유율 39위→7위...매년 34만개 일자리 창출=한국은 수출입국(輸出立國, 수출로 세운 나라)이라는 말도 데이터로 증명됐다.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4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년 만인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4년 후(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87년에는 400억 달러를,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수출액은 6835억8000만 달러로, 50년 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했다.

한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올랐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선전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이 중국(22.8%), 미국(16.1%), 베트남(8.9%) 등으로 다양해졌고, 주요 수출상품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 등으로 고도화됐다.

보고서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국가 전체의 투자총액이 1974년 21조3000억원에서 2022년 568조4000억원으로 26.7배 오르는 동안, 민간 부문이 지식재산생산물에 투자한 금액

은 2545억원에서 120조7000억원으로 474배 증가했다. 전체 투자액 대비 민간 지재물 투자 비중은 1.2%에서 21.2%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1976년 0.42%에서 2021년 4.96%로 늘어나며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R&D 투자액 102조1000억원 중 민간이 투자한 비중은 76.4%(78조원)였다.

1974년 임금 근로자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개, 매년 평균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의미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은) 기업이 단순히 세금을 잘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만큼, 기업인들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가올 100년을 열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16일 열린 2023년 13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기업형 드림터 간담회에서 기업 및 광주경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드림터 간담회 개최

7월까지 5개월간 진행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6일 '2023년 13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기업형' 사업으로 드림청년 125명이 참여하고 있는 드림터 기업 7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경험드림+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지침 설명과 인사·노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또 광주경총과 드림터 간 표준협약을 체결했다. 13기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13기 드림청년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전기·전자와 회계, 문화·디자인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일 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양진석 회장은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한 기

업들은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 구인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도 일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업무와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 일경험+ 기업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Dream) 사업팀(062-654-34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은행, 2023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5월 22~24일 접수

한국은행은 대학생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3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2~24일이며, 예심을 거쳐 지역 예선에 참여할 팀을 선정한다.

같은 대학교 재학생 4명이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나 휴학생과 졸업 후보 중인 학생은 팀당 1인으로 제한된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예선대회 오는 7월 19~20일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결선대회는 오는 8월 한국은행 본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062-601-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테크노파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나서

8개 기관과 업무협약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 운영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TP는 최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GB금융지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비롯해 경남과 대구, 제주, 충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총 8개 기관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무·미팅공간을 상호 개방하는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을 운영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에는 협약기관의 보육 스타트업 및 추천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다 편안한 근무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멤버십 대상 스타트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예약 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 기관들과 향후 창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타 지역 창업기업들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대상 토탈케어 서비스 개시

금융소외지역 '찾아가는 금융버스' 운영

전남신보보증재단이 16일부터 금융소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담도담 토탈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시 및 산간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영업점이 없는 12개 지역도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남신보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금융회사 및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함께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다.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은 현장에서 보증·대출, 교육·컨설팅, 재무상담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금융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도담도담 토탈케어

서비스 시행으로 생업에 바쁜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금융버스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당지점, 동광지점, 각학지점